



■ 연구원 소식

○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다시 계획할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와 월든 숲(上)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매사추세츠州 콩코드의 숲에 있는 소로우의 오두막

내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숲속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 읽게 되었다. 그 당시엔 먼 나라 미국의 소로우가 누군지 잘 몰랐다. 그렇지만 숲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으로 짐작 되고 숲에 대한 관심은 어릴 적 기억 때문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낸 곳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근교 남양이라는 동네이고 남양감리교회에서 아버님이 시무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교회 앞에는 작은 내가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 임내(林內)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제법 큰 고목 나무들로 뽕뽕이 둘러싸인 넓은 숲이었고 거의 매일 이곳에서 짝게 벌레, 매미 등 곤충들을 잡으며 뛰 놀았던 추억이 생생하다. 그런 때문이 지금도 '숲'하면 어릴 적으로 돌아가 회상에 잠긴다.

아무튼 어릴 적 기억과 연관되어 그 책을 읽게 되었고 소로우의 숲을 꿈꾸게 되었다. 그때가 1967년이었으니, 외국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때이므로 막연히 꿈만 꾸었다. 그런데 3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당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출장을 갔다가 내친김에 보스턴으로 갔다. 그곳에는 청교도 정착지와 꿈에 그리던 소로우 숲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스턴에 묵으면서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 나섰다. 우선 보스턴 시내보다 소로우를 보고자함이었으니, 기차를 타고 50여분 걸려 콩코드역에 내렸다. 콩코드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독립 전쟁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진격 로(路)였던 렉싱턴 거리가 있고 동네 안쪽으로 가면 좌우 가까이에 문인, 사상가들이 살았던 집들이 지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당대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에머슨이 - 그는 인간이 경험과 사실의 물질세계를 초월하여 우주에 퍼져 있는 정신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잠재력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초절주의(超絶主義)자- 살았던 저택 '올드 맨스(The Old Mense)' 길가에 있었다.

이 집은 에머슨뿐 만 아니라 '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 그리고 소로우가 한 때 살기도 한 역사적 저택이다. 또한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컷이 재잘거리는 네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이 인근에 있고 에머슨이 철학을 가르쳤던 학교도 있다. 그 때문에 이 마을은 자연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에머슨 집 안쪽 숲으로 들어가면 독립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그 유명한 올드 브리지(Old Bridge)가 마을의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에머슨의 집(위), 아래 사진 좌측의 하얀 안내판에 이집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안내소와 친절한 안내원이 빌려둔 자전거

작은 마을이라 반나절에 다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월든(Walden 소로우 숲)으로 가기 위해 마을 초입에 있는 안내소를 찾아 갔다. 안내소에서 지도를 사면서 안내원에게 길을 물었다. 안내원은 나를 유심히 보더니 월든 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걸어서 갈 것이다.'라고 했더니 내 카메라 가방이 무거워 보였는지 '자전거 탈 줄 아느냐'고 다시 묻는다. 물론 이지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빌려 준다.

때는 9월, 하늘은 청명했고 도로변의 깨끗한 집들은 가을꽃들로 만발하였으며,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에 따라 뺨으로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게 또는 시원하게 느낌을 다르게 해 준다. 한적한 시골길을 20여분 달리니 꿈에 그리던 소로우의 숲인 월든에 닿는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다섯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백장암 삼층석탑”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장암으로 오르는 1km가량의 길은 가파른 만큼 심하게 요동을 친다. 길가의 나뭇가지들이 좌우의 차창으로 불쑥 다가들었다가 얼른 물러난다. 솔잎은 살짝 푸른빛을 머금었다. 회색빛 하늘에 바람이여전하다.

이리저리 몸을 가누며 비탈을 오르던 차가 주차장에 선다. 앞쪽으로 예의 삼층석탑과 석등이 먼저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에 법당을 새로 올렸나 보다. 석등 뒤쪽으로 갓 지은 목조건물이 들어섰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삼층석탑과 석등은 밭 가운데 있었다. 제일 앞에는 사리탑 네 기가 나란하다.

불탑의 기원은 부처님 열반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500여 년전 부처님은 쿠쉬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장례는 쿠쉬나가라에 살고 있던 말라족에 의해 치러졌다. 다비 후에 나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8개 부족이 나눠 가졌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사리를 모실 탑을 세웠다. 이 탑들은 '근본팔탑根本八塔'으로 지칭된다. 사리의 분배를 중재했던 드로오나는 사리를 담았던 병으로 병탑瓶塔을 세웠고, 뒤늦게 당도한 펴팔리나나의 모라족은 남은 재를 가지고 가서 회탑灰塔을 세웠다. 그리하여 최초의 탑은 모두 10기로 늘어나 '근본십탑根本十塔'이 되었다.

이후에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기원전 268~232년 재위)은 근본팔탑에서 사리를 꺼내 인도 전역에 84,000기의 탑을 세웠다. 이때부터 승려들도 직접 불탑을 관리하고 숭배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탑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탑을 보면 공양을 올렸으니, 탑은 곧 부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탑의 역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사와 사리를 전해 받은 신라의 자장율사(590~658)에 의해 비롯되었다.



백장암 삼층석탑 | 국보 제10호.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스님 한 분이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이 석탑을 최고로 친다고 목에 힘을 주었다.

자장율사는 신라로 귀국한 다음, 황룡사의 9층 목탑을 비롯해 수많은 탑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의 전탑이나 일본의 목탑과 달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이용해 만든 석탑이 차츰 주를 이루게 되었다. 돌을 다루는 솜씨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지닌 장엄하고 예술성 높은 탑들이 꼬리를 물고 출현하였다.

백장암의 삼층석탑은 9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조각 장식과 개성적인 구조를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이 탑은 전체가 조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탑신塔身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각으로 채워졌다. 탑신의 1층에는 보살상과 신장상神將像이 각각 2구씩 나타난다. 신장상은 금방이라도 호령을 하며 뛰어나올 것만 같은 역동적인 모습이다. 곱게단장한 보살상은 사람들의 눈길을 차마 떼지 못하게 만든다.

2층에는 천인주악상天人奏樂像이 새겨졌으니, 한 면에 2구씩 배치한 양각의 형식이다. 천인은 부처님께 음악공양을 올리는 존재들로서 커다란 깨우침을 이룬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공경의 표현이다. 천인들은 각각 공후, 생황, 비파, 장구, 배소, 나각, 젓대, 피리 등을 연주하는 형상이다. 차분히 들여다보면,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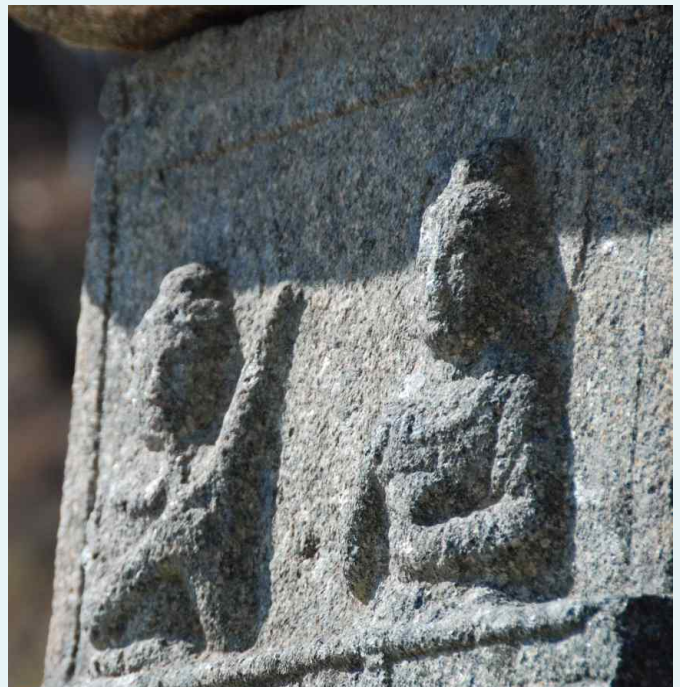
3층의 네 면에는 천인좌상天人坐像이 1구씩 새겨 있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지붕돌 밑면에는 연꽃 무늬가 선명하다. 사실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한 조각을 품은 석탑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상륜부의 노반露盤・복발覆鉢・보개寶蓋・수연水煙이 완전한 찰주擦柱에 겹쳐 있는 모습도 희귀한 예에 속한다.

이 탑은 구조가 특이한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석탑들은 기단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구조다. 그런데 백장암의 석탑은 기단부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지대석 위에 탑신을 올린 이형異形의 탑으로 널리 알려졌다. 기단과 탑신 고임에는 난간 모양을 새겨 멋을 부리기도 하였다. 아래층의 탑신은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것도 일반적인 형태와 크게 다르다. 일반적인 탑은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와 높이가 줄어드는데 비해, 이 탑은 너비가 거의 일정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심지어 2층과 3층의 경우에는 높이까지 얼추 비슷하다.

이 삼층석탑은 목조건축의 양식을 어느 정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목조건축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서, 당시의 목조건축 양식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료로 평가를 받는다.

요약하면, 이 탑은 갖가지 형상의 조각으로 장식을 올린 화려함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조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석탑 중의 하나로 기꺼이 지목해 볼 수 있다. 국보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잔디 위에는 잔설이 녹아내리는 중이다. 나는 한참 동안 석탑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 보았다. 그렇다. 이 탑은 정녕 손으로만 빚어낸 걸작이다. 변변한 도구도 없이, 분명 정과 망치만으로 두들겨 낸 탑이다. 이 탑을 만들기 위해 그 옛날 장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었을까?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허공에 울려 퍼지는 산새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내 귀를 가득 메웠다.



탑에 새겨진 상 | 왼쪽이 신장상이고 오른쪽이 주악비천상이다. 절집을 지키는 험악한 신장들 위로 천상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들이 올라앉았다.

다음 주는 <수청산 백장암> 여섯 번째 이야기 “석등과 청동향로의 자태”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